

2023년 7월 23일(주일) 제1640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아가페타운에서 만나요!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 7월-28일(금)-29일(토)  
2023 한마음축제 : 7월 29일(토)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와 2023 한마음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평에 소재한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는 7월 27일(목) 청년부수련회를 시작으로, 7월 28일(금)-29일(토)이며 주제는 "우리들의 여름이야기"입니다.

또한 7월 29일(토)에는 '2023 한마음축제'가 같은 장소인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서울교회는 지금까지 매년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찬양대회를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7월의 무더위에 체육대회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2023 한마음축제'로 진행합니다. 이 큰 두 행사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8월 4일(금)까지,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김승록 장로)는 2023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일반, 순례, 광림, 송암, 브리스길라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일반장학금 및 순례장학금은 교회내 대학생, 광림장학금은 호산나대학생 및 강남구 관내 대학생으로 장애인 또는 극빈자, 송암장학금은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브리스길라장학금은 신학생이 대상입니다.

광림장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

년 이상이며,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청년부 출신하고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대학생을 선발 조건으로 한다. 또한, 청년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청년부 및 봉사부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8월 4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7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 2023 한마음축제 경품

- \* 성인 대상: LG 330리터 김치 냉장고  
LG 일체형 컴퓨터
- \* 학생 대상: 애플 아이패드 10세대  
애플 아이패드 9세대
- \* 이 외 다수의 경품들이 추가 됩니다.



### 2023년 3/4분기 추가 섬김 위원

1. 예배위원회
  - 주일1부 헌금: 차장 박영실 / 장세진 최금숙 홍성미
  - 주일2부 헌금: 임종열
2.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찬양대: 이서진 양계화 강석범 최철웅
  - 할렐루야: 윤춘섭 · 임마누엘: 유명미 백종훈
  - 호산나: 김진경 · 시온: 성준모 이신재 · 갈렘: 석춘희
3. 교육위원회
  - 유치부: 정서현 정주원 조재석 · 유년부: 박윤호
  - 초등부: 옥유진 · 사랑부: 부각 박준희 / 김재환
4. 교구위원회
  - 4교구 간사: 김영희1
  - 5-6 다락방 다락방장: 최정숙4 - 부다락방장: 임명숙
5. 전도위원회
  - 70인전도대 - 지도: 장성남 목사 - 부장: 김지수12
  - 차장: 채교진 김에라미 - 총무: 김순진 - 회계: 김은숙1
  - 대원: 광명자 김정제 나현주1 남은희 노인숙 박현영 서문석 서희숙
  - 위성남 이관규 이봉선 이순영 이영애4 임우택 전인숙1 정금희1
  - 정미연 조정옥 홍창훈
  - 수요기도팀: 김숙자 김명자 김홍두 심상필 이상섭 전용순 정복순1
  - 황재연 주경자
  - 토요일기도팀: 권성자 김명자 김예환 김정희1 김찬진 신정순 양옥자
  - 이경선 이경희2 이봉규 이영희1 이우희 이용자1 이정연1 이홍숙
  - 장정화 전용순 정희순 주화인 채덕희 최근자 최원자 황선희

## 호산나대학-가평군

###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MOU체결

호산나대학은 17일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가평군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이동귀 호산나대학장,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긴밀한 연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관련 행사 등 특화프로그램 개발 협력, 유기동물 보건위생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정기적 자원봉사 추진,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및 정보교류 등을 이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고 동물복지 행정서

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귀 학장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가평군의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협력할 것이고 발달장애 학생들이 관내 유기견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평군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 경기도 내에서는 군 단위 최초로 유기동물보호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애견직업훈련센터를 개소했고 2019년부터 가평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물매개치유활동", "독거어르신 반려견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전 11:9-12:2)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가문이 장악했던 종교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습니다.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빌라도 법정에서 세우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소리 높여 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했고 그의 권력은 영구히 확보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조작할 만큼 막강한 위력을 행사했던 그의 가문 역시 3대를 이어가지 못한 채 유골함의 분

토로만 역사에 부끄럽게 남았을 뿐입니다. 헛된 삶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전 1:11)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칭찬과 박수로 언제나 나를 맞이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역사는 냉정하고 인심은 무심한 것이어서 우리의 육신이 분토처럼 사라지듯 우리에게 대한 기억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듯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무하게만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현실을 직시하라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최고의 삶을 구가했던 왕으로 가장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막대한 정치적 유산과 국가적 자산을 물려받았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화려하고 위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허무한 생각만이 그의 뱃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바꾸고 싶어 했던 그의 희망도 좌절되었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며 정치의 한계를 실토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였고 세상을 고치지도 못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왕상 11:3에는 솔로몬의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이것 또한 미친 짓이었다고 처참한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곳에 불공정과 사욕과 뇌물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것은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더 번성하고 의인이나 악인의 종말이 다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의 선행 때문에 득을 보고 살지만 의인은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손실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악은 무성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처절해도 세상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도전해야 합니다.

## 2. 도피하지 말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9절) 이 말씀은 매우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며 정의롭고 담대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부조리가 가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굶은 것을 빠르게 퍼지 못하는 미약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신앙과 정의의 길을 따라 도전하는 긍정과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10년에 한일강제합방이 이루어지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도 휩쓸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 1,760만 중에 약 290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후 1919년 3.1 독립운동도 실패로 끝나고 조선의 독립은 요원해졌습니다. 이때 깊은 좌절감이 우리 민족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술, 도박, 담배 등으로 젊은 영혼들이 병들고, 미래를 꿈꾸어야 할 젊은이들은 허무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로 모였던 많은 지식인들은 친일파로 변절하거나 사회주의 운동가로 전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들

을 중심으로 사회개조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으로 금주 금연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금주 금연운동 전통은 민족의 절망기와 허무주의가 팽배해 가던 시대에 이를 극복하려는 우리 선배들의 불굴의 신앙정신이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양심과 영혼의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 3.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모순되고 험겨운 세상살이의 또 하나의 원리를 전도서에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개막되면서 인류사회는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명에 생각 없이 자기를 맡기면 인간은 기계의 부품처럼 전략하고 존재 의미가 퇴색하며 행복과 보람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 온 세계가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온 세계가 충만한 생명의 세계로 바뀌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세계로 돌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허무와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살면서 허무에 침식당하지 말고 우리 삶을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하시는 곳에 모든 공허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Augustinus는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단지 죽음만 확실하다 (omnia incerta, sola mors certa)’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행하며 인생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허무를 이기고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며 인생의 정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살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허무와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살면서  
허무에 침식당하지 말고  
우리 삶을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하시는 곳에  
모든 공허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김혜연 장로  
(교육위원장)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 18-19절)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던 어느 날, 부고를 접하여 교회의 어르신을 천국으로 모셔드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오던 4월의 어느 청명한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라 저희 7교구 다락방 카톡방에 질문을 띄웠드렸습니다. “비록 나는 능력도 없고 무익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반전의) 응답을 주시나요?” 교구 식구들과 함께 고민하

며 답변을 올리는 기회였고, 저의 대답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느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결과로 이끄시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였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늘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준비해 주셨지?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려고, 기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거나, 역쉬~ 대단하셔^^”

제가 서울교회를 32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장 깊이, 오래, 꾸준하게 기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심이 이번 “연합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큼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시니, 결과가 또 엄청나겠구나, 서울교회와 교회학교의 비전을 열어 주시겠구나”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저의 또 다른 기대는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에게 평생에 기억되는 추억으로, 말씀 안에 품땀 빠지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렸던 순간으로 기억됨으로서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번 수련회를 기억하며 힘을 얻는 “소중한 순간”으로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 ‘말씀 꾸러미’, ‘찬양 보따리’, ‘맛난 먹거리’, ‘신나리 놀거리’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 선물 꾸러미”가 동시에 펼쳐질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그 일”을 기대합니다.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



#### Q&A

**Q : 교회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없어도 참가할 수 있나요?**

A : 물론입니다. 비록 현재 장년부가 없어졌지만 우리 모두 교회학교 학생들입니다.

**Q :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A : 네 종류별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먼저 영역별 선택특강 4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주제에 맞게 참여해 보세요. (지난주 순례자참조)  
2. CCM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루바 찬양콘서트를 통해 은혜의 바다에 빠져보세요.  
3. '말뽕'의 촌공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예중 출신 박재현 배우의 지도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Q : 푸드트럭 메뉴는 무엇인가요?**

먼저 간식코너로 소떡소떡, 떡갈비, 츄러스가 준비되고 식사로 햄버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이드북에 쿠폰이 있으니 가이드북을 잘 참고하세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8일(금), 아가페타운에서 뵈겠습니다!





## 기독교의 큰 공적, 구라선교(1) - 광주 나병원과 구라대행진



간호선교사 쉐핑  
(Elisabeth J. Shepping)



부산 나병원



대구 나병원



소록도 자혜의원

천도교의 잡지 '개벽'은 1934년 11월 호에 "조선 삼대종교 공과론, 기독교회의 공과 과"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천도교는 기독교의 의료선교를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병원은 영리주의가 아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 밀적자면서 사업정신으로 해가볼 것이다. 권라도의 나병원은 정복으로서도 아직 힘쓰지 못할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구라사업은 기독교의 큰 공적이다.*

이 글에서 기독교의 큰 공적으로 지목된 권라도의 한센병 환자(나환자 또는 문둥이) 구료사업은 여수 애양원을 의미한다. 애양원은 1909년 포사이드(Wylie H. Forsythe) 선교사가 행한 사랑의 실천에서 출발했다. 1904년 4월 2일 목포의 프렌치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포사이드는 광주의 오웬(Clement C. Owen) 선교사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다. 광주기독교병원의 의료선교사인 윌슨(Robert M. Wilson)은 외과 전문의였고 이질과 폐렴으로 위중한 오웬의 치료를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인 포사이드가 필요했다. 포사이드는 즉시 광주로 출발했지만 오웬은 이튿날인 4월 3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오웬의 사망을 모르고 걸음을 서두르던 포사이드는 나주 남평을 지나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10년 넘게 한센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었다. 포사이드는 자신이 타고 있던 말에 여성을 태웠다. 훗날 광주의 성자로 불린 최흥종 목사는 흥축한 몰골과 심한 냄새로 가까이 가기도 힘든 사람을 거리낌 없이 자신의 말에 태우고 광주로 들어오는 포사이

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당시 집사직으로 있으면서 제법 믿는다고 하던 나였는데 사랑이라는 진미(眞美)를 못 깨닫고 포의사의 그와 같은 애적(愛的)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회고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가 병원에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몹시 불편해했다. 여성을 병원에서 옮겨야만 했다. 윌슨은 우선 여성을 병원 인근의 오래된 벽돌가마로 옮겨 거처를 마련했다.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었다. 광주에 나병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환자 수가 급증하자 미국남장로회 선교부는 인도·동양 구라협회(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the East)의 지원을 받아 1911년 4월 광주 봉선리에 정식으로 나병원을 개설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나병원이 운영되었다. 미북장로회는 1904년부터 부산의 한센병 환자를 보고 "한국 나환자 사업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로 1909년부터 부산 일신기독교병원 인근 언덕에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진료로 시작하여 이듬해 부산 나병원을 정식 개원했다. 대구에서는 1911년부터 미국북장로회 선교사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가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해 1917년 대구 나병원을 설립했다. 기독교의 나병원들은 대체로 환자들이 자치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병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어 환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었다.

191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총독부도 한센병 환자 격리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것이 1916년 소록도에 만들어진 자혜의원이다. 그러나 기독교 병원과 달리 조선총독부는 환자들을 단순한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여 엄격한 '절대적 격리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퇴원을 금지할 뿐 아니라 '단종시술'을 통해 한센병 환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그런데 당시는 한센병 환자의 수가 너무 많아 그나마 그런 시설조차도 아쉬운 상황이였다.

1928년 '조선나병근철폐연구회'를 조직하고 꾸준히 구라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최흥종 목사는 총독부에 더 많은 나환자 집단수용시설과 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 몇 차례의 묵살을 경험한 최흥종 목사는 1933년 간호선교사 쉐핑(Elisabeth J. Shepping)과 함께 광주에서 조선총독부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훗날 '구라대행진'이라 불리게 되는 이 행진에는 출발 당시 15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했는데 조선총독부에 도착했을 때는 4-50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한센병 환자들의 무리가 총독부 건물로 진입하자 경비원들도 제지하지 못했다. 최흥종은 우가키 총독을 만나 소록도 시설의 대폭 확충, '단종시술' 폐지, 치료 받은 환자들의 갱생 지원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 결과 1939년 소록도는 섬 전체가 한센병 환자들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시설로 확충되었고 갱생원이 설립되었다.

### 여수 애양원 방문기



김에리 권사  
(교구)

## 애양원 : 사랑(愛)으로 양(羊)을 키우는 동산(園)

애양병원은 1909년 미국인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센병원입니다. 이 건물은 1925년 여수에 터를 마련하고, 1928년 '광주 나병원'에서 한센병자 600여 명이 옮겨와 지금의 '애양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72년부터는 양로원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부터 애양원 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센병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한센병 의료 기관의 발전과 역사를 보여주는 각종 의료 기구와 사진자료 등이 풍부하게 전시되어 있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념하는 역사관으로 개축되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면 한센병의 추이와 하나님이 이 병원과 한센병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양원은 애양병원, 여수(구)애양원 교회, 애양원 역사박물관,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등에 그 역사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애양원교회(예장 통합)의 제2대 담임목사인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 7월 14일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했고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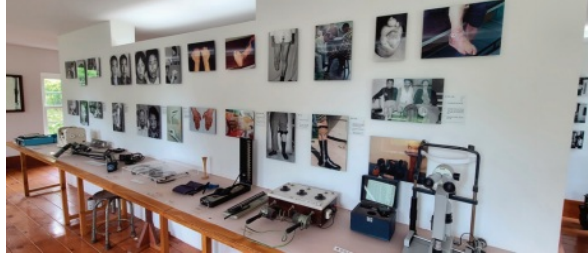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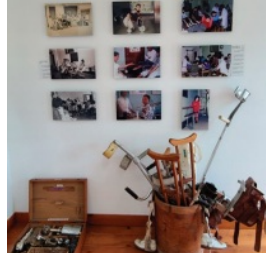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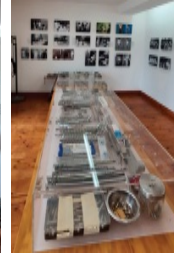
에양원 예배당



손양원 목사



에양원 역사 박물관:박물관 내부에는 의료선교기관의 역사를 보여 주는 각종 의료 기구와 사진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년 일제에 항거한 '원탁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에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의 와중에 순천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동인, 동신)이 예수를 따르다는 이유로 공산당 청년(안재선)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 겉면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적혀 있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1만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에양원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인도한 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10가지 내용은 신행일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알지만 머리 위에 얹힌 자식에 대한 우상도 내려놓기 힘든 크리스천에게는 감탄스럽고 먹먹할 뿐입니다.

손양원 목사에게 성경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에 원망도 미움도 비통함도 모두 내려 놓았습니다. 안재선이 잡혀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 그 원수를 양아들

로 삼는다는 아버지의 뜻을 딸(손동희)로부터 직접 듣고 있던 취조실은 안재선 학생의 참회의 눈물과 모두의 감동으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었고, 후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오빠를 죽인 원수에 대한 원망과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오빠로 받아들여야 했던 손동희(손목사 딸)씨는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 그들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죽지 않은 한 알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남해바다를 여행하며 마지막으로 들른 에양원은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강남노회 선교찬양잔치를 마치고

##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 토요일(7월 15일) 강남노회 남선교회 선교찬양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고 은혜롭게 치뤄졌습니다. 강남노회 선교찬양잔치는 2016년 6월 묘동교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2019년부터 코로나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하다가 실로 4년 만에 열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날 본 행사는 2시부터였지만 일찍부터 참가 교회들이 속속 모여 임원회의, 점심 식사, 참가 교회별 찬양연습 등으로 교회는 온종일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도위원회(위원장:차영도 장로) 주관인 만큼 각 전도회와 선교회와 안내,

식사준비, 차 봉사, 주차 봉사, 방송실 봉사 등으로 만전을 기하며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그림중창단(단장:김은석 안수집사)과 필그림 앙상블(악장:정인주 안수집사)이 참가하여 서울교회의 음악성과 위상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참가 교회 가운데 묘동교회 김창열 안수집사님은 "섬세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감명 받은 섬김은 서울교회에서 참가 교회별로 담당자(가이드)를 지정해 주신 점입니다. 연습실 안내, 식사 안내, 커피, 분당 자리 안내까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강남동산교회 박

병구 안수집사님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이민호 장로님, 차영도 장로님께서 찬양제를 더욱 빛나게 해주셔서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서울교회와 당회원과 성도님과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서울교회에 따로 감사를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회가 분쟁과 코로나 등으로 긴 휴지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저력을 발휘하며 이 큰 잔치를 잘 치루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었습니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식사 제공**

- 5교구 김선자 권사, 딸 문가림 성도(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옥수수 제공**

- 전도위원회(위원:차영도 장로)는 농촌교회를 조금이라도 돕는 마음으로 강원도 홍천 소재 도심리 교회(담임목사:홍동완 목사)에서 찰옥수수 700개를 구매하여 오늘 삶아서 만나홀에서 성도님들께 제공합니다.



**70인전도대  
7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1시-2시)	날짜	수요일(전도회) (오후 1시-2시)	날짜	토요일(선교회) (오후 1시-2시)
				7/1	빌립 안드레 베드로
7/2	자원자	7/5	도르가 루디아 보비	7/8	바울 엘리야
7/9	자원자 마리아	7/12	한나	7/15	모세
7/16	자원자	7/19	에스터	7/22	이삭
7/23	자원자	7/26	리브가	7/29	한마음축제
7/30	자원자	8월은 흑서기로 노방전도 방학입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7월24일	월	전 7-12	
7월25일	화	아 1-8	
7월26일	수	사 1	
7월27일	목	사 2-4	
7월28일	금	사 5-8	
7월29일	토	사 9-11	
7월30일	주일	사 12-17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7월24일	월	민 4-7	
7월25일	화	민 8-12	
7월26일	수	민 13-16	
7월27일	목	민 17-22	
7월28일	금	민 23-28	
7월29일	토	민 29-32	
7월30일	주일	민 33-36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모든 만남의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향배를 풍기는 예수 제자 되게 하소서.
2. 27일(목)-29일(토) 교육부 연합수련회, 7월 29일(토) 한마음축제가 은혜 중에 진행되어, 회복의 감사와 기쁨, 부흥의 소망과 열정이 넘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수해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어 복음화된 통일국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광인 차명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